

광주시의회 12년만에 2野 교섭단체 '초읽기'

더민주 이어 국민의당도 이달말 교섭단체 등록 시의회 운영방식·의정활동 등 상당한 변화 예상

광주시의회에서 12년만에 양당 체제의 원내 교섭단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교섭단체 구성으로 그동안 사실상 일당 독재이었던 광주시의회 의정활동 양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4·13 총선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양당 구조로 재편된 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더민주만 교섭단체를 구성했

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23일 이미 교섭단체 등록을 하고 원내대표, 대변인 등 진용도 갖췄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후반기 원구성이 끝난 뒤 최근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가 교섭단체 구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24일 대전에서 열리는 당내 시·군·구의원 연찬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이달 말께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소속 한 의원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등록서류를 이미 받아왔다. 24일 회의를 거친 뒤 이달말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등록을 완료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각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4대 의회(2002~2006년) 하반기 의정단 선거를 앞둔 2004년 이후

12년만에 양당 체제의 교섭단체가 완성된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시의회가 양당체제 교섭단체가 완성되면 더민주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과 의회내 다수당인 더민주, 2당인 국민의당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의정단 중심 운영방식의 변화와 함께, 집행부와 의회 간 관계 설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자전거 고쳐 드립니다 23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 문을 연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에서 정비공이 자전거 정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자전거 타기 붐 조성과 자전거 동호인 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사시사철 어촌 찾을 프로그램 만든다

연말까지 '요트 체험마을' 조성 모닥불 조개구이 겨울 체험도

여름성수기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전남 어촌을 찾으면 '모닥불 조개구이'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어촌에서 요트를 타고 주변 경관을 즐기며 낚시를 할 수 있는 등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전남도는 23일 "특정계절이 아닌 사시사철 도시민이 전남어촌을 찾아 쉬며 휴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은 전국 섬의 65%, 해안선의 45%, 갯벌의 42%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가진 어촌마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촌마을이 프로그램이 갯벌 조개구이 및 개막이체험, 낚시 등에 한정

돼 있어 여름 성수기에만 관광객이 몰렸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 어촌의 풍부한 자원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고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연말까지 '요트가 있는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한다. 9월 중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요트계류 시설, 기존 체험프로그램과 연계성 등 현지 여건을 조사해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내년 5월부터는 요트승선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모를 통해 어촌계가 '겨울바다 파도소리 길', '어촌 마을 밥상', '모닥불 조개(고구마)구이' 등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개발해 제안하면 전남도가 승인하고 지원

하는 방식이다. 오래돼 낡은 어촌체험마을 바지선과 화장실, 안내판 등 체험 기반시설 보수·보강과 체험마을 사무장이 바다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해 체험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어촌체험마을은 도시와 어촌간의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늘려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조성해왔다. 지금까지 전국에 106개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됐으며, 전남에는 보성군 선소 어촌체험마을 등 29개 어촌체험마을이 있다. 지난해 전남 어촌체험마을을 다녀간 관광객은 총 48만9000명으로, 전남도는 오는 2020년까지 어촌체험마을 관광객이 100만명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천일염 산업 육성 기술교류 전남도보건연-목포대 협약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3일 전남의 천일염 산업 육성·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국립목포대 천일염사업단과 조사·연구사업 등의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남 천일염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교류, 조사·연구사업, 교육·홍보 등에 협력하게 된다. 또 천일염의 보건·위생적 생산을 감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분석 장비, 분석 방법 및 공개 가능한 검사 결과 상호 공유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수인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천일염 안전성을 확보, 전남의 천일염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쌍두마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 차원 튜닝산업 연구개발시절 영암 F1 경주장 주변에 구축해야"

전경련 주최 포럼 전문가 제기 "규제 완화·전문인력 양성을"

정부 차원에서 영암 F1경주장 주변에 튜닝산업 고성능 연구개발(R&D) 시설을 구축하고, 경주장과 연계 시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만큼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정착시켜나가면서 튜닝 전문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도 잇따랐다. 23일 영암 전남 자동차프리미엄연구소에서 이낙연 전남지사, 박준영·이용주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동력,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방안' 포럼이 개최됐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5700억 원을 들여 자동차 튜닝 관련 연구·개발, 성능시험과 평가, 품질인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관련 기업 100개를 유치해 신규 일자리 1만7500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유일의 국제 공인 1등급 경주장인 영암 F1경주장 주변에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한병석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은 "독일, 영국 등 선진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영암 F1경주장 주변에 고성능 연구개발(R&D) 시설을 구축하고, 경주장과 연계 시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성용 신한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튜닝이 불법이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정착시켜나가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튜닝 전문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 패널 토론에서 김도훈 산업연구원 고문을 좌장으로 홍승준 창원문성대학교 교수, 이동원 아주자동차대학교 교수, 서정욱 티유브이슈드코리아(TUV SUD Korea) 본부장, 임준병 준비비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전남 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檢 특별수사팀 구성 '우병우·이석수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52)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예초 서울중앙지검 조사

부나 형사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중요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철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대검은 "여러 수사 방식이 논의됐으나 특별수사팀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태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동시 수사를 벌이게 됐다. /연합뉴스

광복회 "이정현 대표 제안 건국절 국회 공개토론 찬성"

광복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건국절 관련 국회 내 대국민 공개토론 제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날 "건국절 공개토론은 그동안의 국력 소모를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 정체성을 영구히 유지해 나가는 데 중대 사안이라 여겨진다"면서 그 같이 주장했다. 광복회는 "여야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건국절 논쟁을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사안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

서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마음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토론회에 임해 줄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다 있는 생일도 없는 대한민국 운운하며 국민을 오도하지 말라"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를 처음 쓴 1919년 4월 13일을 대한민국의 생일로 정하면 왜 안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원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